

‘나는 가수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가수는 노래로 승부하고 관중들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노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기를 누리던 가요계 풍토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것은 치열함이 있기 때문이다.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가창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가수들이 일주일 간의 미션 곡을 받아 눈물겹게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

에너지 경쟁 시대, 나는 에너지다.



하 정 수
한전 전력연구원 수화력발전연구소장

지금 우리는 에너지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실로 에너지 분야에서 ‘나는 에너지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 누가 진정한 에너지인가? 진정한 에너지가 갖추어야 할 3대 특성이 있다.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한다.

원자력은 안전의 문제가 걸려있다. 원자력 르네상스라고 불려 질 만큼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었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까지도 원자력을 확실한 미래 에너지로 자리매김하던 차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원자력 에너지는 안전이라는 장애물을 반드시 극복하여야 한다.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큰 노력을 할 것이다. 안전이라는 큰 걸림돌을 치우고 미래 에너지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화력발전은 환경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용량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것이 곧 실현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순산소 연소기술과 연소 후 기술이 서로 경쟁



하고 있다. 아울러 청정석탄 기술로서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소가 2015년까지 국내에 준공될 예정이다. 6,000kcal 이상의 고급 유연탄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4,000kcal 정도의 저급탄도 사용할 수 있는 유동층발전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더욱 경제적인 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고자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최근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선호는 오히려 금물이다. 신재생발전 기술은 경제성의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정책적인 지원이 없으면 아직은 경제적이지 못하다. 기술개발이 절실한 이유다. 환경을 위해 설치되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소가 오히려 환경을 해친다고 야단이다. 조력과 파력 등 해상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려는 더 큰 도약이 있어야 한다.

에너지에는 공짜가 없다. 우선 공짜로 보이는 에너지가 나중에는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거저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에 기술적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사활을 건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일방적인 승자가 없을 것이다. 기술마다의 장·단점이 있기에 국가적으로 최적의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 '나는 가수다'와 같은 경쟁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신약성경에 이러한 비유가 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열 명의 처녀들이 밤에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다. 다섯 명의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였고 나머지 다섯 명은 그렇지 못하였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사람은 빌려달라고 애걸하지만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에너지인 기름을 준비한 사람에게만 천국이 열리는 것이다. 물론 에너지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깨어서 미래를 대비하라'고 한다.

에너지 기술 간의 경쟁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다. 안전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미래 에너지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예능 프로그램의 생존경쟁 수준을 뛰어 넘는다. 우리들의 생존 문제이자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기술자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모든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에너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에너지를 아끼고 절약하며 미래 에너지를 위해 투자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KEA